



“농약은 농작물을
병충해로부터 치료해 주는 약”



▲ 홍무기
식약청 보건연구원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한태원)은 지난 5월 10일 전북 김제에 위치한 SG한국삼공 농업 연구소에서 여성전문지 우먼센스 독자 40명을 초청, 「2012소비자파워유저 농산물 및 농약안전성 교육」을 개최했다.

교육강사로 나선 홍무기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연구관은 강의에 앞서 “유기농은 깨끗하고, 농약을 뿌린 작물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사람이 먹는 약은 의약이듯이, 농약은 농작물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병과 해충으로부터 치료해주는 약이다”라며 정의를 내리고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와, 「농약의 올바른 이해」에 대해 열정적인 강의를 통해 독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김계순 독자는 “베란다에 상추와 고추를 키우는데 약을 주지 않았더니 다들 작고 여기저기 벌레 먹은 부분도 많이 생기더라구요. 식중독이라도 일으키면 어쩌나고 고민이었지만 가족이 먹는건데 찝찝하다는 생각에 약을 주지 않았거든요. 오늘 이곳에 와서 농약도 의약품만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니 안심된다”고 전했다.

수년간 우리 농산물 및 농약안전성 홍보에 매진해온 한국작물보호협회는 특히 금년도 부터는 실제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출여부 시현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교육생들로부터 큰 관심과 인식전환에 큰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고, 오는 7월중에는 서울시 초등학교 교원들은 대상으로 총2회에 걸친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㉞

